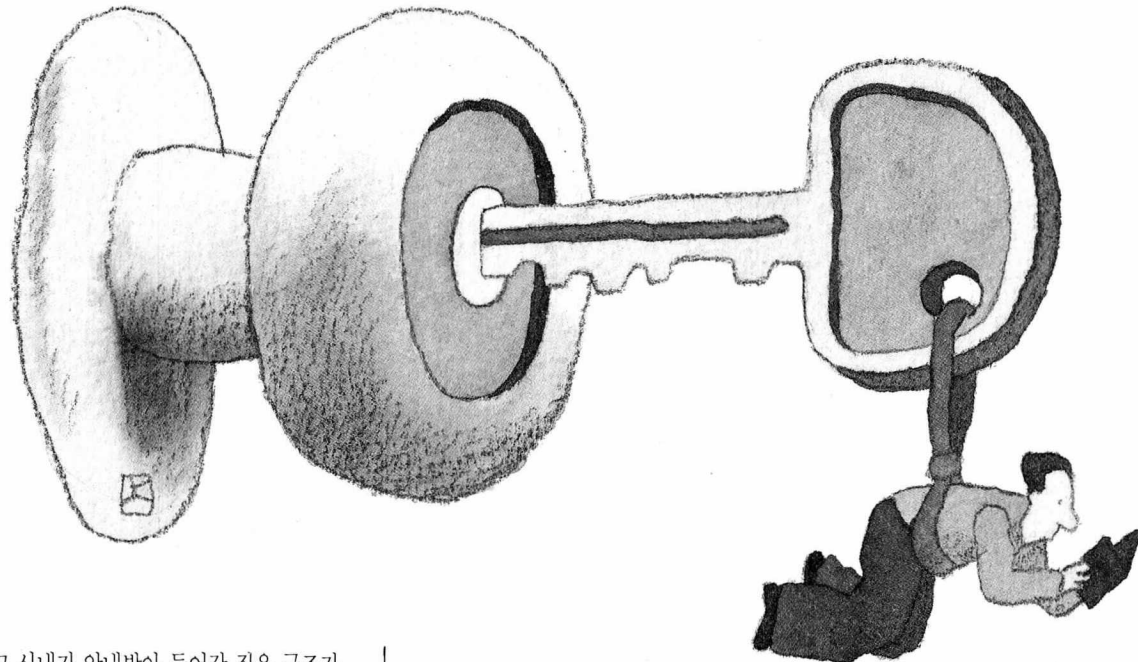


# 한여름 무더위 식히는 '서늘한 독서'

## 마침내 작가로까지 이끈 추리소설 읽기

정건섭  
추리작가



그 사내가 안내받아 들어간 집은 구조가 특이했다. 서구풍 방식에 동양의 골동품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방안의 장식품을 구경하던 그는 자신을 초대할 사람으로부터 카테일을 대접받아 마시기 시작했다. 밖에는 도시의 불꽃들이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술을 마시던 그가 깜박 술에 취해 뒀어졌다. 한숨을 자고 일어난 그는 경악에 떨었다. 같은 집 같은 골동품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는 바닷가의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옆에는 여인의 시체가 놓여져 있었다.

술에 취하기 전에는 분명히 도심 속의 집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집이 몇시간만에 바닷가로 날라져 왔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 여인의 시체는... 별장엔 초대할 사람도 없이 혼자만이 놀란 모습으로 벌벌 떨고 있었다.

이것은 모 외국작가가 쓴 추리소설의 일부분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알라딘의 거인이 집을 옮겨놓은 것일까. 어떻게 몇시간만에 집이 도심에서 바닷가로 옮겨질 수 있겠는가. 여인의 시체는?

추리소설은 대개(물론 본격추리소설인) 경우에 한하지만) 이렇게 시작된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장을 넘기고 또 다음장을 넘겨도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는다.

눈이 별경게 충혈이 된 채 꼬박 밤을 새운다. 해결이 다 끝나고 미스터리가 풀리면 작가의 치밀한 함정에 혀를 내 두른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찾기 시작한다.

이렇게 10여편을 읽다보면 그 다음은 추리소설 초기 증독증상이 일어난다. 다른책은 읽기가 싫어진다. 적어도 40~50권 독파하고 나면 머릿속으로 완전범죄를 구상해보기 시작한다.

“나같으면 이렇게 해볼 텐데.”

“이 방법이 더 리얼하지 않을까?”

추리소설 증독 3기쯤 이르렀다는 증거다. 밤도 없고 낮도 없다. 무더운 여름밤이 언제 지나갔는지, 여름이 다 가고 어느새 가을이 되어 푸르던 잎이 갈색으로 물들어가는지 가늠조차 못한다. 여름밤이 덥다고 느낄 사이도 없다.

드디어 노트와 펜을 들고 범죄구상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쯤되면 추리소설 증독 4기가 된다. 마침내 메모한 것을 소설화시켜 본다. 그리고 한 1~2년쯤 완전범죄 소설에만 몰두한다.

이것이 초보작가의 순서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작가 1기가 되는 셈이다.

완전범죄 소설만 쓰다 보니 작품에 휴머니즘이 부족해진다. 비로소 인간, 문학 따위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트릭만을 쫓는 기교에 치중하다 보니 소설이 건조해지고 어딘가 메말라 보이기 때문이다.

소설을 통해 휴머니즘을 삼입시킨다는가 서정적 분위기를 집어넣으려 애쓴다. 말하자면 추리작가 2기 증세가 나타나는 셈이다.

그 시기가 끝나면 비로소 정치, 사회 같은 주변 사건들에 대해 눈뜨기 시작하며 이것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정립되어가고 비로소 자신의 인생관이 소설을 비집고 들어서게 된다. 말하자면 “작가”로서의 완숙 시기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비단 필자뿐 아니라 국내외 많은 추리작가들이 독자로부터 시작되어 작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많은 독서량을 통해 탄탄한 작가가 된다.

독자로서 추리소설을 읽으며 읽고 설킨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재미가 기막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지만 읽는 재미 못지않게 쓰는 재미 또한 만만치 않다.

한 개의 사건을 설정해 놓으면 작가의 머리 속에는 이미 범인은 결정되어 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놈이 범인이다”라고 밝혀놓으면 재미가 없다. 그래서 복수 이상의 용의자를 설정해 놓는다.

너도, 그도, 저 사람도 모두가 범인 같다. 주변인물 모두에게 용의점이 발견된다. 그리고 한 녀석을 범인으로 지목해 체포해버린다.

“일찍 잡혀버렸으니 그가 범인은 아닐 것이다” 독자들은 미리 점쳐놓는다.

독자와 작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작가가 감춘다고 감추었는데 독자는 이미 범인이 누군지 알아버린다. 이때는 소위 “김 새는”작품이 되고 만다.

결국 영특한 작가와 무딘 작가가 판가름나는 순간이 된다. 그래서 작품은 ‘구상’ 때부터 치밀하게 해야 한다.

마치 회오리에 빨려드는 듯한 사건 전개, 주인공에 대한 안타까움, 범인을 체포하려는 형사대의 치밀한 작전…….

읽지 않고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소설이 바로 추리소설인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히 쫓고 쫓기고, 피하고 잡히기만 하는 내용으로서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것이 최근 독자들의 불만인 것 같다.

적어도 책을 다 덮으면 읽었던 순간의 짜릿함과 읽은 후의 감동이 함께 물려와야 한다.

‘잘된 추리소설’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나는 독자들에게 좋은 추리소설을 선정해서 읽어주기를 바란다. 보도를 위한 신문평보다는 이미 그쪽 방면으로 ‘도사’가 된 친구들을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계명작으로 꼽히는 외국추리소설에 먼저 눈뜨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자선’ ‘추천’을 통해 한권 두권 읽다 보면 반드시 ‘추리소설 증독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마침내 작가대열에 끼어들게 된다.

다행히 적성에 맞으면 인기작가로 발돋움할 수도 있다.

“서늘한 독서”

서늘한 독서로 제일먼저 손꼽히는 추리소설. 그러나 다 읽고나면 따뜻한 인간애에 눈물짓는 그런 추리소설을 찾아 읽어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필자가 권하는 몇개의 추리소설은 누가 읽어도 좋을것이다. 이 여름 아니! 가을 겨울... 시간나거든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란다.

켄 폴렛의 「레베카의 열쇠」 프레드릭 포사이드의 「자칼의 날」 모리무라 세이치의 「인간의 증명」 마스모토 세이죠의 「모래그릇」 오치아이의 「생존자들」 미카엘 바조하의 「판도라 극비작전」 아가사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살인」과 국내의 김성종의 「최후의 증인」 제5월 필자의 「5시간30분」 「땃」 「푸른장미」는 읽어도 좋을 것 같아 추천한다.